



가마귀쪽나무

과명 녹나무과
학명 Litsea japonica
영명 Fiwa
일명 はまびわ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해풍에 강하고 어릴 때 생장이 매우 빠르므로 병해충의 피해도 없어 해변의 방풍수나 방조수로 적합하며 광택이 나고 비로드 같은 털이 밀생하는 잎이 아름다워 제주도 지방등 가로수로 식재할만한 유망수종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경남, 전남, 경북의 울릉도에도 자생하는 수고 7m, 직경 30cm에 달하는 상록활엽소교목으로서 수직적으로 표고 700m 이내의 바닷가와 산기슭에 분포한다. 지리적으로는 일본에도 분포하고 주로 해풍이 미치는 해변가에서 생장이 좋으며 사질양토를 좋아한다. 내한성은 약하여 내륙지방에서는 월동이 곤란하다. 내조성은 강하고, 그늘이나 건조한 토양에서 견디는 능력이 강하여 해안사방용 수종으로 추천할만 하다.

최근 말썽인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지역과 연계해 제주 방언으로 구름비, 구룬비가 언급 되고 있으나 정확한 그 뜻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원줄기는 곧게 서지만 밑에서 많은 가지를 내어 전체 수형은 원정형을 이룬다. 잎은 장타원형이고 양끝이 좁으며 길이 7~18cm, 넓이 2~7cm로서 녹색이며 뒷면에는 갈색 흰 털이 밀생하고 가장자리가

뒤로 약간 말린다. 꽃은 잎겨드랑이에서 짧은 화경을 지닌 복산형화서(複傘形花序)가 발달하고 꽃은 자웅2가화로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으며 10월에 황백색으로 피고, 열매는 핵과로 길이 1.5~1.8cm, 지름 1.2cm의 타원형이며 이듬해 10월에 자벽색(紫碧色)으로 익는다.

번식은 종자로 하는데 10월에 벽자색으로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직파하면 된다. ㉮

